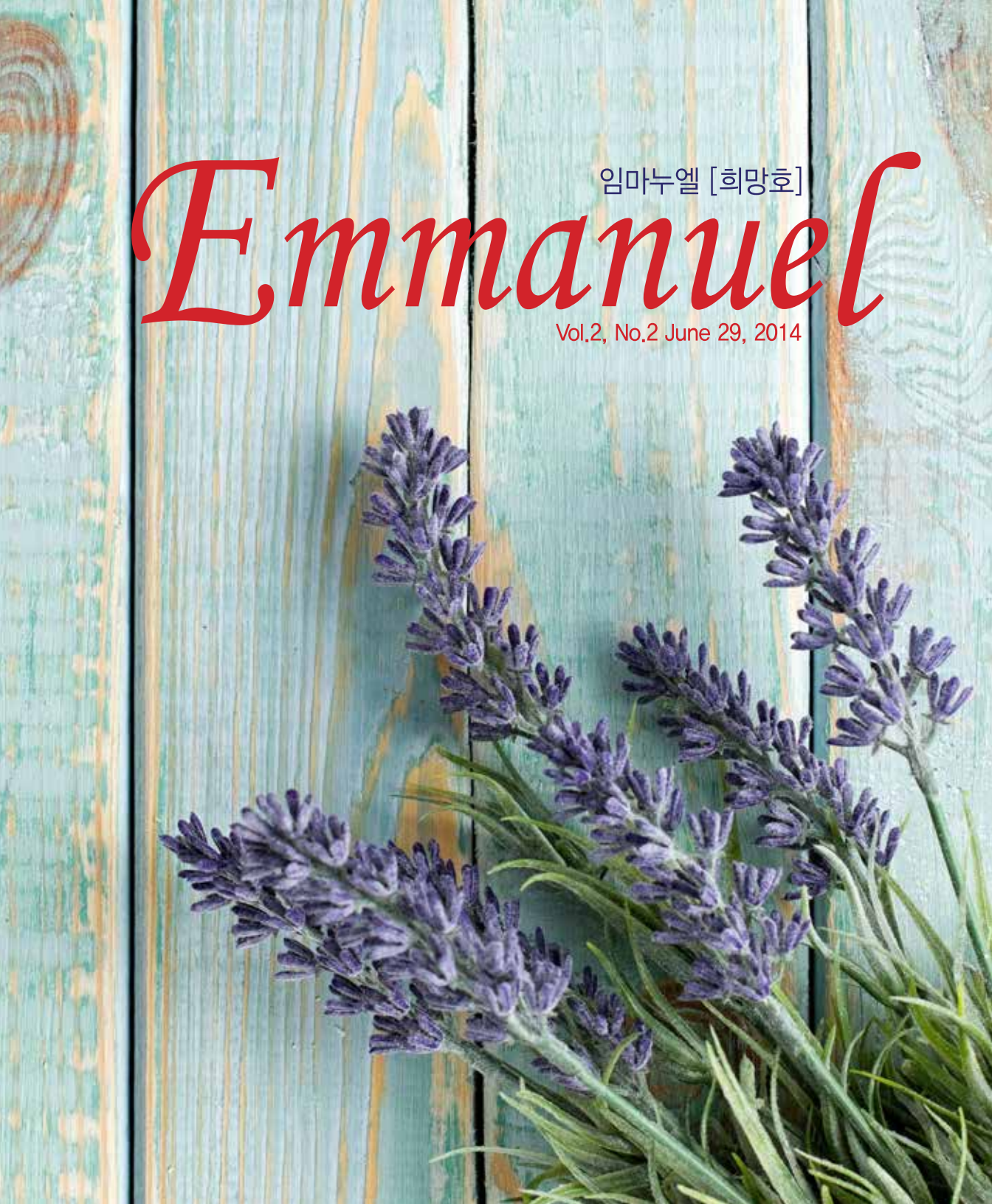


임마누엘 [희망호]

Emmanuel

Vol.2, No.2 June 29, 2014

CONTENTS

희망호를 열며	교회여, 성경으로 돌아가자!	4–5
	삼사일체(三師一體)의 신앙교육	6–7
행전 스타일	〈우리 아이들 이야기〉	
	임마누엘의 아이들	8–11
	아이들이 넘어지려 할 때 무얼 하시렵니까?	12–13
	믿음의 씨앗을 싹 틔우는 정원	14–15
	자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16–17
	Feed My Lambs	18–19
	자녀 행복을 위한 미니 통조림	20–21
	〈나는 이렇게 예배한다〉	
	진짜 최고의 유산	22–23
	이미나 유치부 선생님 댁을 찾아서	24–25
	나의 속마음을 살펴보아요	26–27
	가정예배를 드리다 보면	28–29
소금과 빛의 생각	길	30
	전도팁 –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어야	31
	어머니의 기도	32–33
	희망, 씨앗을 심는 사람들	34–35
Fortran Drive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 에녹과의 만남	36–37
	나의 찬양 – 내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38–39
	임마누엘 레시피 – 닭 가슴살 꼬치구이와 치킨까스	40–41
	크리스챤 영화방 – 완득이	42–43
	함께 읽는 동화 – 꽃을 심는 집배원	44–45
	엄마, 저도 사랑해요	46–47
	'새로운 삶'을 마치면서...	48–49
	성경학교를 마치면서...	50–51
	임직자 독후감 –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	52–53
	텃밭 이야기 – 도시 속의 작은 농촌	54–55
	사랑하는 어머니	56–57
	'A Little Goodbye'	58–59
	건강 칼럼 – 성서속의 한약재:침향	60–61
	Hop to God, 함께 달려가는 아이들	62–63

교회여,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늘날 교회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대거 교회를 떠나는 심각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대학에 진학하면 80% 이상의 자녀들이 1, 2년 안에 교회를 떠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은 해가 갈수록 점점 가속화되어가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왜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날까? 무엇이 문제인가? 흥미를 끌지 못하는 딱딱한 예배 때문인가? 지루하고 고리타분한 설교 때문인가?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교회 지도자들의 사고방식이 문제인가? 복음 전파단체인 Fixed Point Foundation의 대표 Larry Taunton은 대학교에서 Secular Student Alliance(SSA) 혹은 Freethought Societies(FS) 등 무신론자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 중인 젊은이들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우리의 통념과 달리, 청년들이 신앙을 떠나는 이유는 설교가 고루하거나 예배가 딱딱해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의 고백에 의하면,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교회가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놀이 문화를 도입하고 성경을 진지하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들이 신앙을 포기할까 두려워서 성경을 집중하여 가르치지 않고 그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이, 그들을 교회 밖으로 내몰았다는 것이다. 성경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보다, 그들을 재미있게 해주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그들을 무신론자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교회만이 줄 수 있는 진리를 교회가 주지 않는다면, 오히려 세상이 더 잘 줄 수 있는 흥미에 교회가 매달린다면, 떠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흥미를 얻자면, 그들이 세상을 향하지 왜 교회로 오겠는가? 어떻게 교회가 수천명 모이는 팝 콘서트, 영화, 연속극, 수만명 모이는 스포츠 경기 등과 흥미를 놓고 경쟁을 하여, 떠나가는 청소년, 청년들을 붙잡을 수 있겠는가? 교회는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성경의 진리로 승부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이 성경을 성경대로 선포하지 않는다. 어린이, 청년, 장년들에게 선포되는 설교에 '십자가의 도'가 빠져있다. 소화시키기 어려운 성경의 진리들, 곧 죄, 회개, 심판, 지옥에 관한 말씀을 외면하고,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도덕적 교훈, 지식과 정보, 감동과 재미를 주는 '가벼운' 이야기들로 가득 채우고 있다.

확신 있게 선포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죄를 자각하는 것, 곧 성경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절망적인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임을 잊지 말자.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집중하여 가르치자. 그들이 신앙을 등지지 않을 것이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교회가 살 길은 이 길밖에 없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 손원배 목사(2013년 7월 목회편지 중에서)

삼사일체(三師一體)의 신앙교육

연초에 하나님께서는 손원배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예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16주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든 것이 예배이고, 이러한 예배는 교회의 예배당에서 예식적으로 드리는 전통적인 예배에 제한될 수 없는,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항시적이며 영원한 예배가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곧 저희의 생활의 현장에서,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대대에 걸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로 드려져야 하는 예배이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이제까지 이러한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 저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거룩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자녀를 가진 부모로서 그들을 훌륭한 신앙인으로 키우는 것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귀중한 예배임을 깨닫게 됩니다. 바꿔 표현한다면,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올바로 키우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엄중한 명제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지요. 자녀교육이 곧 예배임을 깨닫게 될 때, 앞서 말씀드린 예배 패러다임의 변화는 자녀교육의 패러다임에 시사하는 바가 큼을 바로 깨닫게 됩니다. 곧, 예배가 교회의 예배당이라는 한정된 장소에서 드려지던 것에서부터 일상적인 생활의 공간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것처럼, 신앙교육도 주일학교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이뤄지던 것으로부터 자녀들의 일상적인 생활의 공간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일상적인 생활의 거점이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임을 생각하면, 신앙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자연스럽게 가정이 그 중심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자녀 신앙교육은 과연 현실적일까요?

먼저, 자녀들의 일상적인 생활의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그들의 시간을 보내는 곳을 크게 집, 학교 그리고 교회로 보면,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중에서 약 55%를 집에서, 40%를 학교에서, 그리고 나머지 5%를 교회에서 (그것도 교회 활동에 아주 열심인 경우가 아니면 보통 2% 정도) 보냅니다. 그런데 저희는 자녀들의 삶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들이 절반 이상의 시간을 보내는 가정을 등한시하고 기껏해야 5% 정도를 지내는 교회의 주일학교에 모든 신앙교육을 떠안겨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교육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인가 자문해 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이제 자녀 신앙교육의 거점이 교회의 주일학교로부터 각 가정으로 확대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관계적인 면에서는 어떤 현실적인 필요가 있을까요? 자녀들을 포함한 저희 모두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서로 수많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영향을 주고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부모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연 질서의 하나로 자녀들의 양육을 부모에게 맡기셨던 것이겠지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저희 부모들이 자녀들의 양육을 소위 전문가들에게 일임하고 뒷전으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학문적인 지식은 학교에, 그리고 신앙적인 교육은 교회에- 그리고 마침내 이러한 전적인 일임이 가져온 폐단의 아픔을 피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품게 되고 마침내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데는 부모들의 불신앙적인 모습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진 슬프고도 두려운 사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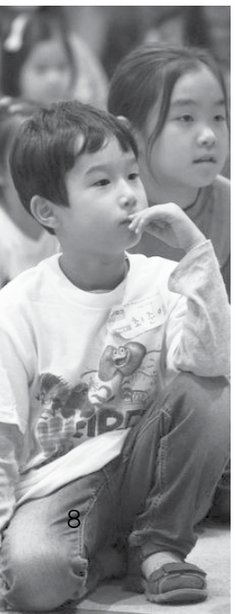
이제 예배가 가정을 중심으로 한, 생활 속에서의 예배가 되어야하는 것처럼 자녀의 신앙교육도 가정을 중심으로 한, 생활 속에서의 교육이 되어야 하는 것이, 그리고 결과적으로 부모들이 자녀교육의 최전선에 서야 하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으로도 필요한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교육1위원회에 속한 모든 교역자와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각 가정을 신앙교육의 중심 거점으로 세우는 비젼을 함께 이루어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그동안 주일학교에서의 신앙교육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와주신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학부모님들의 이러한 후원에 힘입어 저희 주일학교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더 나아가 가정이 신앙교육의 중심 거점이 되게 하도록, 자녀 신앙교육의 후원(supporter) 이셨던 학부모님들을 동역자(fellow worker)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주일학교를 통한 교육을 한층 강화함과 동시에, 학부모님들께서 각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세워드리고자 합니다. 이럼으로써 주일학교 사역자와 교사, 그리고 각 가정의 학부모가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세 그룹의 교사로서 하나가 되어 (三師一體), 저희 자녀들을 향해 전방위적으로 몰려오는 사탄의 공격을 역으로 전방위적으로 물리쳐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저희와 저희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와 인내와 열심을 주셔서, 저희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들로 세워지고,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더욱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모든 사역자와 교사들과 학부모님들과 함께 삼사일체로 기도하는 소망을 품어 봅니다.

- 백준호 장로

임마누엘의 아이들

"Jesus' Love is
One-of-a-kind..!!"



임마누엘의 아이들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임마누엘의 주역들

"가라,
세상으로!"

"아이들이 넘어지려 할 때, 무얼 하시렵니까?"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임마누엘 식구들 가정에 문안드립니다.

몇 년 전 제가 들은 너무도 아름답고 슬프고 감동이 있었던 우리 유치부 자녀의 기도로 시작할까 합니다. 부활주일, 선생님이 안 오시는 바람에 제가 공과공부를 가르치러 들어갔습니다. 그 때 예영이라는 어린이가 자신이 기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작한 기도. "예수님…십자가에서 얼마나 아프셨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들은 그 어떤 기도보다도 솔직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신실한 기도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왜 우냐 물었지만, 대답할 수도 없었고 부끄러운 나 자신만을 발견하였습니다. 너무도 큰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도 많이 고난주간과 부활절 때 기도를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프셨을지 진실하게 생각지 못했던 저 자신이 너무도 부끄럽고 죄송하였습니다. 저를 우리 자녀들의 입술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열심히 자녀들을 섬기게 사용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벌써 임마누엘 자녀들과 시간을 보낸 지도 약 1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제가 처음 유치부에서 가르치고 섬기던 자녀들이 지금은 찬양팀의 리더로, 또한 선생님으로 여러 곳에서 주님 일에 세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매일매일 제게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들의 입술을 통해 힘차게 고백 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도 귀한 소망이 있음을 매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할지 또는 어떠한 환경에서 자랄 것인지 저는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 바로 그들이 다음 세대에 세워질 영적인 리더가 될 것이며, 어둠을 빛으로 비추는 귀한 빛의 자녀들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를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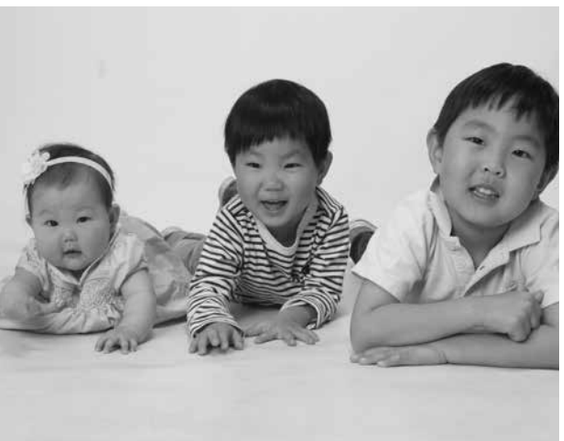
특별히 요즘 들어 너무도 많은 법의 변화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악영향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법을 바꾸며 제도들을 비성경적으로 바꾸려 노력하고 이루어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을 향한 믿음의 선포이며, 이를 위해 꾸준히 계속해서 기도의 후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홈스쿨과 크리스천 스쿨 등이 대안이 아닌 바로 그들이 Public school에 들어가서 어두워져 가는 곳에 빛이 되어 밝히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알고 있는 답인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바로 우리 자녀교육에 가장 중요한 것이자 자녀교육의 전부임을 믿고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올해까지 약 1,000명의 어린이들을 만났습니다. 일일이 전부 이름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기억해보려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저와 함께한 약 1,000명의 어린이들을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올해 9월이 되면 약 60여 명의 어린이가 졸업, 초등부로 올라가고 또한 영/유아부에서 약 60여 명의 어린이가 올라와 그들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한 약 1,060명의 어린이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넘어지려 할 때, 그리고 어둠에 빛이 꺼져갈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어서고 다시 빛을 발하며 주님의 자녀로 늘 세워져 갈 것임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 송호영 전도사

믿음의 씨앗을 싹 틔우는 정원

작년 이맘때 즈음이었어요. 친교실에서 식사 중이던 우리 가족에게 한 장로님께서 다가오시더니 둘째 세언이를 가리키시며 "이 아이 엄마예요? 내가 예배시간에 얘 유모차에 태워서 많이 돌아다녔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언이가 너무 울어서 유모차에 태워 예배시간 내내 교회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시면 울지 않고 잘 있다는 말씀이었어요. 만 한 살부터 영유아부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세언이, 예배시간 내내 울던 세언이가 이제는 안 울고 잘 지내고 있다고 알고 있던 저는 "아차!" 싶었습니다. 제가 창문 밖으로 우는 아이 보느라 예배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선생님은 제게 세언이가 잘 지낸다고 하셨었나 봐요. 그리고 이내 감사의 마음이 함께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정말로 세언이의 울음을 그치게 한 것은 간식도, 장난감도 아닌 선생님의 기도였어요. 울고 있는 세언이를 꼭 안고 작은 손을 잡은 채 기도해주시면 어느새 세언이는 울음을 그칩니다. 매 주일 영유아부 창밖으로 아기를 꼭 안고 기도해 주시는 모습이 저에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주일학교에 들어서면 많은 선생님이 계십니다. 한창 산후조리를 해야 할 시기인 산후 3주에 복귀한 자매님, 어린 두 아이와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에 교사로 헌신하시는 형제자매님 등. 이 많은 분이 뒤로는 포대기로 아기를 업고 앞으로는 또 다른 아이를 안은 채 비누 거품으로 우는 아이를 달래기도 하시고, 때로는 식사 중이시던 장로님도 합류하시어 손을 더하시기도 합니다. 믿음 없는 유년시절을 보낸 저는 이 풍경들이 제 어린 시절의 삶에는 없었던 그림이기에 제 아이들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 이렇게 내 손을 잡고 기도해주시는 분이 계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말이죠.

첫째 동언이와는 달리 유난히 잘 울고 고집이 센 세언이는 형과 동생 사이에 끼인 둘째라 그런지 떼를 쓰는 모습도 웃는 모습도 저에게 많은 기도를 부르는 아이입니다. 한창 밥 이야기만 나와도 "안 먹을래"로 시작해 매사에 떼를 쓰던 세언이가 어느 날 아침 식탁에 순순히 앉더니 오물거리며 찬양을 합니다. "반짝반짝 눈 동글동글 코 오물오물 입 쫑긋쫑긋 귀 너는 세상에 하나뿐인 하나님 만드신 소중한 선물". 교회에서 배웠다고 하더군요. 선생님들과 함께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며 예배를 드릴 이 작은 아이들의 잔치가 머릿속에 펼쳐집니다. '너는 세상에 하나뿐인 하나님 만드신 소중한 선물'을 부르는 입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날은 한창 밥 안 먹고 떼쓰며 둘째로서의 존재감을 뽐내던 시기가 끝난 날이기도 했어요.

기분이 좋을 때면 저도 모르게 "좋~~으신 하~~나님~~"을 부르는 세언이, 대통령이 된다면 무슨 일을 하고 싶으냐는 숙제에 교회를 짓고 싶다고 써놓은 의젓한 동언이.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를 부르기 시작하면 입을 쩝쩝거리는 주언이. 마치 나무가 자라나듯이 아이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사시는 하나님을 보며 아직 모자란 부모인 제가 놓칠 수 있는 영양분을 쏙쏙 심어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세상 하나뿐인 소중한 이 아이들을 자존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 부모로서, 그리고 믿는 자로서 제 자신도 아이들과 함께 나날이 자라야겠다는 다짐도 해봅니다.

- 동언 세언 주언이의 엄마 김연희

"세상과 구별된 한명 한명의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임마누엘 초등부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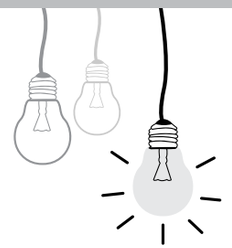
"자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먼저 초등부 어린이들을 주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섬겨주시는 전도사님과 많은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부모 된 저희의 가르침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중요한지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를 그대로 모방하면서 배워오고 있고, 저희의 행동뿐 아닌 말과 생각, 그리고 감정까지 그대로 흡수해 버린 모습을 볼 때, 저희로부터 그들이 과연 얼마나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희 큰 아이 예지가 킨더 때는 그리 많이 느끼지 못했었는데, 어느덧 3학년이 되면서 저희가 자랄 때보다 아이들 세대가 겪는 영적 싸움이 더 큰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대로 무장 없이 학교에 보내지게 될 때 엄청난 세상의 가치관이 마구 엄습해 오는 것을 보면서, 매일 아침 무척 안타깝게 기도하며 학교로 들여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애가 학교에 있는 동안의 중보기도뿐입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게 해 달라고, 오늘 하루도 성령님이 주는 담대함으로 예수님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 주시기를---.



예지가 초등부에서 예배드림을 배우고 말씀을 더 깊이 배우면서, 그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키가 자라듯 눈에 띄게 보입니다. 또한, 배운 말씀을 아직은 미숙하지만, 실천으로 옮기려고 기도하며 전도하려는 그의 모습을 볼 때, 세상의 어떤 상을 받는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자랑스러움을 느낍니다. 세상이 가르쳐 주는 그림들---.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과는 영 거꾸로 그려져 있는 그림들을 보면서, 질문이 생길 때마다 언제든지 다니엘 소 전도사님께 여쭤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시간을 내어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또한 좋은 자료들을 성의껏 보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지가 얼마 전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나중에 커서 다니엘 소 전도사님 같은 Pastor와 결혼하고 싶어요. 전도사님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전도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초등부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님 다음으로 가장 가까운 삶의 본이 되어주십니다.

초등부의 비전처럼 저희 부모들이 교회와 동역 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뿌리내리도록 돕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김을 실천하는 아이들로 자라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한명 한명의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임마누엘 초등부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3학년 홍예지(Claire)엄마 홍세라 드림

"Feed my lambs"

"If your gift is serving others, serve them well. If you are a teacher, teach well"- Romans 12:7-

"They are like trees planted along a riverbank, with roots that reach deep into the water. Such trees are not bothered by the heat or worried by long months of drought. Their leaves stay green, and they never stop producing fruit"- Jeremiah 17:8 -

"But the Holy Spirit produces this kind of fruit in our lives: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and self-control. There is no law against these things!"- Galatians 5:22-23-

Our family moved to Bay Area four years ago, and I have been a fifth grade Sunday school teacher at Emmanuel for the last four years. I saw these 10 year old boys and girls grow big and strong. Most Emmanuel children are fortunate enough to be born into a Christian family, they have come to church all their lives and they know the Bible stories well.

However, beginning of each class year I ask a question, for example:
1) What year was Jesus born? (Most don't know this simple question)
2) Why do we have New and Old testament? (About half understand why)
3) What is salvation? (Almost no one knows)
4) Do you pray, and when do you pray? (Most say before a me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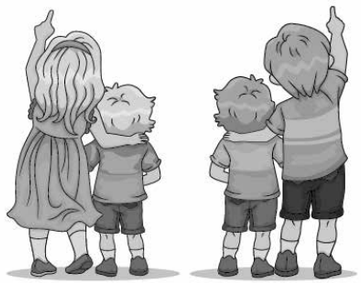
5) Have you seen your parents pray? (About half said they saw their parents pray)
Children ask interesting questions such as:
1) Where is heaven?
2) If they are Catholic, are they Christian?
3) Why do God let bad things happen to Christians?
4) My friend is Indian, and he does not go to a church, will he go to hell?
5) Why is God so violent in the Old Testament?
6) Why would a good God allow evil to exist?

It seems many students have these questions but didn't ask anyone. We must answer the children's questions as Christ have taught us, and we can guide his little ones into God's truth. One of the most significant words in the teaching of Jesus, is that in which he gives his command concerning the care of children. Jesus asked Peter a question, "Do you love me?" and Jesus said to Peter, "Feed my lambs." The children are the lambs, parents come first, but the teacher's influence is very importance in the shepherding of Christ's lambs. The lambs are tender and easily harmed: ungentle treatment of our children will hurt them and giving them wrong advice might lead them in a wrong path. Our tender young life growing up in this world of danger, without the nurture of Jesus's love will lead to a wrong path. I believe it is essential that my love of Christ is necessary for this shepherding which I always lack. I pray Jesus love transforms my life in which I dwell. I am blessed I had an opportunity to watch young minds and faiths grow. I hope and pray our Emmanuel children grow to be leaders of the Silicon Valley, and spread the faith.

- Mike Yom (CM Sunday School Teacher)

자녀 행복을 위한 미니 통조림

처음부터 자녀를 갖기에 성숙한 사람은 없다. 그래서 결혼의 진정한 가치는 어른들이 자식을 만들어 내는 데 있지 않고 아이들이 어른을 만들어 내는 데 있다고 말하나 보다. 부모는 아이들을 기다리며 성숙해지고 인생을 배워 나간다.



▸ 자녀에게 배우자

자녀에게 교훈을 얻는 부모가 되자. 때 묻지 않은 자녀들의 생각과 그들의 예리한 통찰력을 통해 인생의 지혜를 얻어야 한다. 그들 속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바라보면, 거기 밝은 미래가 있다.

▸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자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기보다는 보다 본질적인 일에 신경을 써야 한다. 성 어거스틴은 말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나머지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런 명제를 받아들이는 순간 자녀는 부모를 신뢰하게 된다

▸ 10대의 미숙함을 흡수하고 이해하자

나도 그들처럼 미성숙할 때가 있었다. 그들의 행동 하나 하나를 되받아 치기보다는 감싸 안자. 비판, 지적, 잔소리는 자녀를 귀머거리로 만들고 어느새 타인이 된다. 설사 말이 안 되는 행동일지라도 상담자의 시각에서 들여다 보자.

▸ 자녀는 부모의 뒤에서 배운다

부모의 삶과 가르침을 일치시켜 본을 보여야 한다. 백 마디의 훈계보다는 한 번의 모범이 더 큰 힘으로 발휘한다.

▸ 본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자녀에게는 그들 나름의 시간표가 있다. 내가 자녀가 될 수 없듯이 자녀 역시 내가 될 수 없다. 나와 같이 되도록 하기보다 스스로 자신만의 가치를 찾아 가도록 도와 주자.

▸ 기대를 조절하자

잘못된 기대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파괴하고 좌절을 안겨준다. 자녀의 눈높이에 맞추어야지 억지로 부모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하면 어긋나 버린다. 지나친 기대로 고통을 주어서도 안 되고 낮은 기대로 자존감에 상처를 주어서도 안 된다. 적절한 기대만이 아이를 발전시킬 수 있다.

▸ 더 나은 환경을 만나게 하자

아이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대신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자. 길을 내 주고 물꼬를 터 주는 대로 물은 흐른다. 더 나은 자원과 환경에 맞닥뜨려 배우고 즐기게 하자.

▸ 부모도 힘들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자

부모가 힘들 때가 있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면 자녀들도 부모를 돕는다. 부모를 돕다 보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성숙해진다.

▸ 실수할 때 친구가 되어 주자

부모의 역할이 가장 필요할 때는 자녀가 정상에 있을 때가 아니라 실패하고 실수하여 낙심해 있을 때이다. 그때 친구가 되어 도와 주자.

▸ 자녀를 위해 기도하자

기도보다 더 강한 무기는 없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 시킨다. 잠결에 들리는 부모의 새벽기도 소리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녀를 지키는 방파제와 같다. 기도로 굳게 닫힌 마음 문을 두드리자.

- 송길원 목사의 행복 통조림 중에서

진짜 최고의 유산

가정예배를 드리고자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녁 시간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참으로 한심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귀찮아하고 막상 앉혀서 예배를 드려도 딴청에 해찰하기 바쁜 모습을 보면 회의도 들고 어의도 없기 마련입니다. 세상에 지루한 것이 꽤 있지만, 그중 단연 최고로 지루한 것 중 하나는 가정예배를 드리려고 앉아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교회에 출석하며 성장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대학에 진학할 때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쉬지 않고 저희 삼남매와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아직도 너무도 새록새록 기억이 납니다. 한글로만 읽어도 도통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성경을 한문이 섞여 있던 것으로 읽으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연히 수없는 날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잠들기 일쑤였고 누님들의 주기도문을 외우는 소리에 깨기를 반복했었습니다. 아마 한 23년쯤은 이렇듯 예배가 지루하고 따분했던 것 같습니다. 돌아가며 말씀을 읽고 삶에 비추어 보아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시던 아버지 질문에 늘 동문서답만 했던 생각이 납니다. 말씀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되었으니까요. 아버지도 많이 답답하셨을 텐데 잘 참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따분하게 드리던 예배가 만 23년째가 지나서야 즐거운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너무나 신기하게도 말씀이 이해되고 집중할 수 있게 되어 가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읽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부분도 부모님이 감탄하며 놀라시는 내용을 나눌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셨습니다.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아 가정예배 전에 모르는 한자를 찾아서 예습하고 예배 드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찬양시간은 화음을 넣어 가며 불렀고 말씀을 암송도 했습니다.

이렇게 대학에 진학할 때까지 가정예배를 꾸준히 잘 드렸었어도 군대에 입대하며 부모님 곁을 떠난 후 가정예배와는 점차 멀어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교회야 꾸준히 다녔지만, 일주일에 한 번뿐이었고 나머지 6일은 많은 다른 일들로 분주하게 지나갔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와서는 학업에 치이고 취직을 해서는 일에 치이며 가정예배를 등한시했습니다. 부모님은 통화할 때마다 가정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강조하셨지만, 막상 저는 작심삼일에 불과했습니다. 일에 정신이 팔리고 삶의 무게에 기가 질리다 보니, 죄에는 점차 무방비가 되어 갔습니다. 죄의 기준이 차츰 무뎌지고 또 잘 타협하는 재주가 생겼습니다. 주님과는 미지근했고 목자라는 직분은 맡았지만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허수아비 같았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해야 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가정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식으로는 잘 알고 있었지만 실천하기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몇 번이고 가정예배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고 텔레비전 앞에 맥없이 졌습니다.

그러던 중 2013년 8월경쯤 주일예배 때 가정예배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다시 주님 앞에 저희 가정을 드릴 수 있는 순종의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아이들과 10개월째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25년 전 시작했던 가정예배처럼 찬양하고 말씀 읽고 하루의 삶을 나누며 주님 앞에 하루를 마감합니다. 점차 삶이 예배가 되어 가고 부부생활이 신앙생활로 바뀌어 갑니다. 죄에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닌 죄를 다스리는 힘을 주심을 체험합니다. 말씀을 읽고 삶에 적용하려고 순종하다 보니 관계들 가운데 막혀있던 담들도 허물어지는 것을 봅니다. 사랑을 품은 담대함과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십니다. 구원을 받는 길도 단 하나 오직 주님이시지만 삶에 승리하고 죄에 승리하는 길도 오직 주님과 동행함 뿐입니다. 세상이 날로 험해져 가는 것을 느낍니다. 촌각을 다투는 세상에서 가정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지루하고 미련하고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없어도 주님을 믿는 데 지장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린다한들 별로 다른 것도, 달라지는 것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사탄이 주는 착각입니다. 단언컨대, 지금 우리의 삶과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 예배입니다.

- 안지철

이미나 유치부 선생님 댁을 찾아서...

지난 4월 13일 주일 저녁, 가정예배를 모범적으로 드리는 이미나 유치부 선생님 댁을 탐방하였다. 가족 구성원은 시아버지 박찬우, 시어머니 박현주, 남편 박성은, 딸 이빈(3세), 아들 인호(2세), 모두 6식구 삼대 가정이다. 한 가정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목자들이니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자연히 부목자들이다. 그래서 어느 날은 가족실과 거실에서 각각 목장 예배를 따로 드리고 식사도 함께한단다. 아무래도 시어머니의 맛깔스러운 음식 지원을 받게 된다고 며느리는 애교 섞인 목소리로 고백한다.

'예배가 삶이다.'라는 구호 아래 예전에도 가족예배를 드렸지만 요즘 담임 목사님의 주일 숙제를 하면서 다시 가족 예배가 회복되어 기쁘고 감사하다고 전한다. 주일 저녁이면 시어머니 박현주 권사는 슬슬 손주들 중심으로 예배 준비를 하고 아이들은 방에서 엄마 아빠를 모시고 거실로 나온단다. 다정하고 즐거운 분위기로 둥글게 앉아서 가정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편집부에서 방문한 날은 박찬우 시아버지께서 진행하셨다. 먼저 아이들 위주의 찬송으로 경배의 시간을 가진 후 이미나 선생님(자부)이 그날 주일학교 설교시간에 나눈 말씀을 읽었다. 아이들은 낮에 들었던 내용을 다시 들으며 좋아한다.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두 살 난 인호는 돌아가면서 식구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제목을 말하도록 순번을 부른다. "할아버지!~~", 한 사람의 기도제목이 끝나면 "엄마!~", "인호!" 자기 이름도 부르며 다음 식구들의 이름을 순서대로 부르면서 기회를 주는 모습이 정말 귀엽다. 함께 중보 기도 할 때는 아이들도 입으로 소리를 내며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로 함께 기도한다. 자연스러운 아이들의 예배 모습과 가정예배 순서에 익숙해 진 아이들이 진행을 앞서 나가며 돕는 분위기이다. 기도 소절이 끝날 때마다 '아멘'을 외치는 아이들 소리가 합쳐져서 은혜가 되고, 순서를 참고 기다리는 훈련된 모습이 아름답다.

기도제목을 나눌 때는 가족들의 기대와 소망을 알게 되고 하늘 아버지께 아룀을 통해 마음이 하나로 모이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감사의 내용과 고마움을 나누게 되자 가족 간의 이해와 소통이 배가 되는 느낌이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 드리고 시간을 보니 정확하게 20분이 지났다.

가정예배를 통한 은혜도 들어 보았다. "손주들이 어려서부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아플 때 기도하는 손주를 보며 기도가 몸에 배는 예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 자라가는 것이 자랑스럽다."(시아버지), "전통적인 예배의 틀을 넘어 손주들 눈높이로 맞추고 예배를 즐거워하도록 사랑으로 배려하고 받아준다."(시어머니), "가정예배를 드리며 새롭게 된 것은 아이들이 손잡고 돌아가면서 예수님이랑 말하는 모습이 귀엽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서 사랑스럽다. 가족 기도문화를 가지게 되고 찬양을 선곡하며 서로에게 맞춰 주고 배려하여 한 마음으로 드리는 가정예배 분위기가 정말 좋다"(이미나 선생님), "가정예배는 주일예배, 화요 여성예배, 수요 저녁예배, 목요 찬양예배, 금요 목장예배, 토요 새벽예배의 연장선에서 드리는 예배이며, 늘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 속에서 삶 가운데 자유함, 은혜, 행복과 공급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남편)

5대, 6대째 신앙의 유산을 이어 온 가족이 시부모님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며 사는 모습 속에서 생명, 평안, 지혜, 능력, 사랑, 자비 등 하나님의 모든 부요함과 예수 향기가 물씬 풍긴다

- 편집부 장은영

나의 속마음을 살펴보아요

2014년이 들어서며 매 주 예배시간 마다 손원배 목사님께서 내 주시는 숙제가 있습니다.
'가정예배'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는데... 지금 임마누엘의 가족들은 그 숙제를 받으며
어떤 표정을 하고 있을까요? 나의 속마음을 들여다 봅시다.

우리의 맘과 표정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이십니다.
아버지와 나누는 시간, 가정예배에 우리 가족이 함께하면
그 속에서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매 주일 새교우 데스크에
임마누엘 가정 예배 교안이 준비되오니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미처 가져가지 못하셨다면,
www.kepc.org의 가정 예배 교안에 있는
PDF FILE을 가정에서
프린트 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는 수 많은 질문과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기본적이지만 교우들이 알아야하고,
알고는 있지만 계속 실수하게되는
사항들을 되짚어 봄으로써
임마누엘 식구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교회 가정예배 교안을 담당하고 계신
목사님들께 다음과 같이 여쭈어 보았다.

우리가 가정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요?

첫째...임마누엘 교회의 '숙제'이기 때문에... 가 아니라,...
1.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의 도움과 인도함없이는 '가정'은 절대로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2. 가정예배는 당대의 믿음이 후대로 이어져가게 하는 굳건한 연결고리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이 바로 '가정예배'의 유산입니다.

3. 시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 지금 온갖 계략을 꾸며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가정이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 김태오 목사

교우들이 가정예배를 드릴 때 자녀의 연령층에 따라 예배가 달라질 것 같은데 세대별로 나누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1. 어린아이와 함께 드리는 예배는.....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 집중력과 인내력이 다르므로 어린 아이와 예배 드릴 때는 부모님들이 욕심을 내지 말고 자녀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찬양으로 시작하고 순서나 예배 길이(length)는 자유롭고 편안하게 하시되 예배 드리는 좋은 습관이 형성되도록 정해진 시간에 매일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 순번을 정해 대표로 기도하는 것도 좋은 예배의 훈련이 될 것입니다.

2. 청소년기의 자녀와 함께 드리는 예배는.....
순번을 정해 자녀들이 예배를 인도하도록 하면 학생들의 참여도와 주인 의식을 고취할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부모의 자녀에 대한 바람을 나누는 시간이 아닌 말씀에 대한 자신의 성찰과 반성, 삶의 진솔한 나눔이 될 수 있도록 부모님이 본을 보여 주세요.

3. 청년기의 자녀와 함께 드리는 예배는.....
청년기의 자녀가 함께 드리는 예배는 다른 연령대의 자녀보다 횟수가 적습니다. 가능하다면 예배 시간을 가족 리트릿 시간으로 계획해서 게임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해먹고 가족 간의 화목과 사랑을 다지는 시간으로 만드시되 말씀과 기도 안에 서로를 향한 깊은 중보와 격려의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 조종연 목사

우리가 가정예배를 꾸준하게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 가족원들의 일과 마치는 시간이 일정치 않아 가족 간에 적절한 예배 시간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공통으로 최대한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찾아 가정예배의 자리에 임해야 합니다.

2. 문화 차이 또는 세대 차이 때문에 자녀들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가족 간에 돌아가며 예배를 인도하거나, 자녀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과 찬양곡을 고르도록 시도해 보시구요. 또 가능하면, 자녀가 예배 인도를 하도록 도와주십시요.

3. 각 가정의 부모님들이 역량 및 시간 부족 때문에 예배 준비와 인도에 큰 심적 부담을 느낍니다. 가정예배의 인도자로서 주님께 먼저 마음을 비우고, 가난한 마음과 상한 심령을 갖고 하나님께 좀 더 의지하며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십시요. 가정예배를 통해 가족이 함께 한다는 것이 중요하므로 꽉 짜인 예배의 형식에 얽매이기 보다는 가정예배가 즐겁고 의미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가족 간의 갈등은 가정예배를 중단하게 만듭니다. 가족들이 싸운 후에 '예배 드리자'라고 하기 쉽지 않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리기 전에 불화를 일으키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서로서로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그로 인해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자칫 자책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런 일이 반복 될수록 가정예배가 부담스러워 질 수 있습니다.

5. 가정예배 시간에 부모님들이 훈계를 하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에서는 부모님들의 이야기 보다는 성경을 그대로 읽고 들으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순전하게 주님과 보내도록 합니다. 훈계는 자녀들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싫어하도록 만들곤합니다.
- 유소진 목사

목사님들의 말씀을 담으며 우리의 가정예배가 더욱 풍성하여지고 지속적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식구들 한사람 한사람이 각자를 배려하는 마음과 노력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느낀다.

가정 예배를 너무 형식화하지 말고 *예를들어, 화분에 핀 예쁜 꽃을 앞에 두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읽고 주님의 창조하신 꽃에 대해 나눈다든지, 맛있는 간식을 나누며 감사에 대해 이야기한다든지, 간단한 게임을 한다든지... 등등 가정예배가 가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나눔의 시간이며 자녀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있어도 예전에 드렸던 가정예배를 떠올리며 추억의 앨범을 들추듯 가족들의 맘에 간직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숙제가 아닐까? - 편집부 엮음

*이기복 교수의 상담 내용 중에서

길

참으로
긴 날을 지나왔습니다
주님 뜻이려니
주저 않고 달려온 길

눈떠보니 낯선 곳에
키만 덩그렇게 큰 나무되어
내가 서 있습니다

밤하늘에 걸린 달도
다가갈수록 비껴가듯
가다가다 멈춘 곳
그곳에
당신이 계심을 알았습니다

길은
가파른 길
이제야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내 남은 길을.

시인 홍인숙 (Grace Hong)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어야….

전도자는 확실한 구원의 체험과 함께 전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전도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신 사명감이다. 또한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이다. 물에 빠진 사람이 우리 앞에서 허우적거린다고 생각해 보라.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 편하게 구경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목숨을 걸고 뛰어 들어가 구출하든지 아니면 그러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할 것이다. 영적으로 볼 때 전도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 친구들이 지금 멸망의 수렁 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 내가 지금 구해 내지 않으면 저들은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믿는 자라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생명줄을 던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영적인 눈으로 이러한 절박한 상황을 보았을 때 예레미야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 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렘20:9) 라고 했으며, 베드로와 요한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행4:20) 라 고백했다. 특히 사도 바울은 동족 유대인의 구원을 위하여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찌라도 원하는 바로라"(롬9:3)고 그의 간절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와 같이 전도는 죽어가는 심령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저들을 살리겠다는 투철한 각오를 가지고 행할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이규학 , 전도자 핸드북 중에서

어머니 기도

“어머니의 기도”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부소부재 하시며 전능과 이김과
위엄이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그 시대와 비슷합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픈 대로 살기를 즐겨하는 요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하여 세계가 복음화되게 하옵소서. 이 미국땅이 세계를 위하여 생명 걸고 복음을 위해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아직도 수많은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 것을 쫓으며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지옥에 던져질 저 영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볼 수만은 없습니다.

기도로 사랑으로 말씀으로 권면으로 저들을 위해 더욱더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우리 조국을 돌아보시고 북녘땅을 돌아보시옵소서. 아직도 남북으로 갈라져 위협과 거짓과 불화가 끝이 없습니다.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피끓는 기도를 드리는 북녘 동포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어서 속히 통일이 이루어져 세계 복음화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예배를 통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어 상한 심령들, 병든 영혼들, 실족한 사람들, 넘어지고 자빠진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강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맘 다해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들이 있게 하시며, 회개하고 주께로 나오는 심령들이 날마다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뉘우치지 못한 많은 죄악을 성령님을 통해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죄악 가운데서 빛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주일마다 지각하는 성도들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찬송과 예배와 물질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사역자와 또 주님의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셨사오니 충성을 다하여 몸 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배려하여 섬김과 나눔과 베풂으로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차세대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어린 자녀들과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EM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키셔서 차세대들로 하여금 이 나라 이 세계를 통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중독으로 마약, 게임, 동성애, 낙태 등 황폐해져 가는 우리 젊은이들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회복시키셔서 이 젊은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를 이끌어나갈 영적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세상의 악한 영들을 쳐부수고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숙자 권사

희망, 씨앗을 심는 사람들.

안녕하세요? 올해 새로이 청년/교육 목사로 사역하게 된 이요셉 목사입니다. 처음에 임마누엘 계간지에 글을 실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을 때 조금 고민이 되었습니다. 주신 기회는 감사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무슨 글을 쓸 수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그러다 이번 주제가 '희망, 씨앗을 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 이야기 한번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틀란타에서 사역하던 때였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가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 중 하나였기에 꽤 많은 유스 학생들을 데리고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고 물적, 인적 자원이 충만히 넘치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지교회를 스와니 지역에 개척하시겠다는 비전을 선포하셨습니다. 본 성전에선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넘쳤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제 마음에 부담을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스와니 성전의 유스 사역이 그렇게 마음에 걸릴 수가 없었습니다. 교사도 없고 프로그램도 없고 예산도 없고 제대로 된 방 하나 없는 그 사역이 그렇게 마음이 쓰이고 아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와니는 네가 가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22살 때였는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기도응답이다!" 확신하여 스와니 성전을 전담하겠다고 담임 목사님께 청을 드렸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정확히 세 번을 만류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른 전도사님을 새로 모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제가 가는 것이 모양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저를 생각해주시고 염려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응답까지 받았는데 어떻게 안 가겠습니까?" 라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본 성전에서 청빙을 하는 것이 좋은 전도사님 모시기에 더 좋을 것이니 스와니 유스 사역은 저에게 맡겨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YOUNG VOICE OF EMMANUEL

그렇게 해서 맡게 된 스와니 유스 사역, 시작은 감동으로 했는데 현실은 그렇게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조그마한 방 한 칸에서 5명의 아이를 데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매일 같이 눈물로 아이들을 위해 말씀과 기도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아이들을 모으기 위해 이런저런 구상도 참 많이 해봤습니다. 이런저런 프로그램도 해보고 하니 아이들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돌리니 아이들은 모여드는데 영혼 구원은 없었습니다.

자그마치 3년 동안을 단 한 명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울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예배를 드릴 적마다 차디찬 아이들의 눈을 보며 가슴이 아팠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느냐 물었을 때 잘 모르겠다는 답이 돌아오면 그것이 그렇게 괴로웠습니다. 기도 할 적마다 이 아이들을 구원해 달라고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말씀과 기도의 씨앗을 뿌리던 사역이 3년째 되는 해 45명의 영혼을 이끌고 여름 수련회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 수련회는 준비하던 때부터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태까지는 땅을 갈았고 이제 세워갈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수련회 첫날부터 은혜가 넘쳤습니다. 찬양을 드리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말씀을 듣는 아이들의 자세가 달랐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방의 분위기는 도저히 말로 표현하기 힘들 만큼 거룩했습니다. 수련회 마지막 날 오전 예배 때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는 아이들은 다 앞으로 나와라." 라고 아이들을 도전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왜 이제서야 물어보느냐는 듯이, 기다리느라 힘들었다는 듯이 태반의 아이들이 쏟아져 나와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고 울며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한 영혼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저는 이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큰 사역을 뒤로한 개척지에서의 고생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수련회에서 돌아오는 길에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명 더이상 애통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너무도 기뻤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시편 12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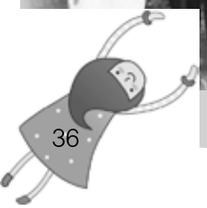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은 이런 씨앗을 심으시는 분들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지경에서 눈물로 밭을 갈고 눈물로 씨앗을 심는 분들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이고 부르심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씨앗 뿌리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거절당할 때 무시당할 때 더 울며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어주실 것입니다.

- 이요셉 목사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이 올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들
'에녹과의 만남'

"에녹 어버이들의 해맑은 웃음 꽃이 핀 봄 소풍"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오직 주님만이 기쁨이고 참된 평안입니다.
가장 선한 것을 주옵시고 바로 이것이 나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

작사자 엘리자벳 페이슨 프렌시스(Elizabeth P. Prentiss, 1818-1878) 여사는 1818년 미국 메인 주 포틀랜드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스물일곱에 조지 루이스 프렌시스 목사와 결혼했는데, 선천적으로 워낙 병약했기 때문에 침상에 누워 있는 시간이 많았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보다 하나님과 만나는 조용한 시간이 많았고, 영감이 떠오를 때마다 틈틈이 시를 써서 발표해 문단의 주목을 받았다.

프렌시스 여사가 결혼한 지 11년이 되던 1856년, 그 해에 유행했던 전염병으로 프렌시스 여사는 그만 사랑하는 두 자녀를 모두 잃게 되었다. 병약한 그녀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었다.

하나님께 헌신된 목회자 가정인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원망하고 방황하며 지냈다. 너무나 큰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남편 프렌시스 목사가 이렇게 말했다.

"아이들이 하나님 품에 먼저 안기었으니, 감사해야 하오. 이번에 오랫동안 설교를 통해 믿음으로 살라고 가르쳤던 바를 실생활에서 나타낼 좋은 기회가 되었구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는 기적이 일어난다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덜 감사하면 그만큼 손해가 나는 것이라오. 여보, 말씀과 믿음으로 새롭게 일어납시다." 사랑하는 남편의 위로와 하나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은 프렌시스 여사는 다시금 일어섰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의 감동에 따라 찬송시(1856년)를 써 내려갔다.

"한때는 세상의 기쁨만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평안과 쉼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이 기쁨이고 참된 평안입니다. 가장 선한 것을 주옵시고 바로 이것이 나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 이 찬송시가 바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찬511장)이다.

1896년 프렌시스 목사는 그녀의 유품에서 이 시를 발견했다. 그는 이 시가 아이들을 모두 잃었을 때 시련을 딛고 일어나 아내가 쓴 시임을 알게 되었다. 프렌시스 목사는 이 시를 윌리엄 하워드던 에게 보여 주고 작곡을 의뢰했다. 이 찬송가 'MORE LOVE TO THEE'를 작곡한 던 박사는 1870년에 편찬한 '헌신의 노래'란 성가집에 이 곡을 소개했다. 이 곡은 경건한 선율과 뜨거운 내용으로 곧 성도들의 애창곡이 되었다. 나아가 1970년 미국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미국 전역으로 널리 퍼져 더욱 알려지게 되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과 그리움을 애절히 노래하고 있는 이 곡은'다만', '내 진정', '더욱 사랑'이라는 완곡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한 감상이나 열심히 아니며 우리의 전 인격과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임을 고백하고 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전엔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 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편집부 제공
출처 -찬송가에 얽힌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서

'닭가슴살 꼬치구이'와 '치킨까스'

세 아이의 엄마인 저는 내일 도시락은 뭘 싸줘야 하나, 내일 저녁은 또 뭘 해주나 하는 고민을 자기 전에 꼭하고 잡니다. 미리 생각해 놓지 않으면 바쁜 아침에 허둥대고 저녁에는 아이들 엑티비티 쫓아다니느라 여유롭게 요리할 시간이 없어 자꾸 외식의 유혹에 빠지게 되니까요.

저희 세 아이에게 언제나 인기 있는 닭가슴살로 만든 두 가지를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닭가슴살은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에게 애용되고 있듯이 지방은 1.2%로 매우 적은 데 반해 단백질은 생선, 소고기보다 높아서 성장기 아이들에게도 아주 좋은 식재료입니다. **단백질이 두뇌 활동을 촉진하고 세포 조직을 생성시키며 뇌 신경 전달물질의 활동을 촉진해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된다니 금상첨화입니다. 게다가 소화 흡수까지 잘 된다니 자주 이용해 줘야겠죠?

*닭가슴살 꼬치구이(레서피 출처 : 김진옥 요리가 좋다 hls3790.tistory.com)

재료 : 닭가슴살 두 덩어리, 간장 2스푼, 카레 가루 1스푼, 청주 1스푼, 다진 마늘 1/3스푼, 후춧가루 약간, 올리고당 1스푼

먼저 꼬치를 끓는 물로 잘 소독해 줍니다. 저는 한참 담가 두었어요.

1. 양념 재료를 모두 보울에 넣고 잘 섞어 줍니다.
2. 닭가슴살을 1cm 두께로 길게 잘라서 양념에 20분 이상 재워 둡니다.
3. 꼬치에 닭가슴살을 끼워서 식용유 살짝 두른 프라이팬에 노릇하게 구워 줍니다.
   밥반찬으로도 좋지만, 볶음밥에 곁들이면 타이 음식 같고 도시락으로도 좋습니다.

*닭가슴살 치킨까스

1. 닭가슴살을 두께가 두꺼운 부분은 반으로 나누어 주고 적당한 크기로 잘라 줍니다.
2. 청주, 소금, 마늘가루, 후추로 밑간해 줍니다.
3. 빵가루 한 컵에 이탈리안 씨즈닝이나 마른 파슬리를 적당히(1~2t) 섞어주고
   닭가슴살에 앞뒤로 잘 눌러 묻힙니다.
   이 상태로 냉동해 두시고 필요할 때 해동하셔서 기름 두른 팬에 잘 구워 줍니다.

스파게티나 유부초밥, 샐러드와 잘 어울리고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도시락 메뉴일 뿐 아니라 목장 모임에서도 가끔 활용해 보시면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 영양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제가 주방에 들어가 밥하는 틈을 타 아이들이 사고를 치는 바람에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맛있는 것을 만들어서 먹이는 것이 제가 보여 줄 수 있는 사랑의 모습 중 하나인 것 같아서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돌보느라 바쁜 모든 엄마들, 힘내세요!

- 유예랑

인생은 불공평하다
..... 그 어느 것 하나 나의 뜻대로 정해진 것은 없다.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모여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께 위로받는 바로 그곳....

저명한 신경정신과 의사였으며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던 M. Scott Peck은 말했다. 인생은 불공평하다고. 그리고 그 사실을 빨리 받아들일수록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이다.

인생은 불공평하다. 그래서 힘들다.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져 있는 많은 설정은 누구에게나 주어진다. 그 누구도 자신의 삶의 디테일을 결정하면서 태어날 수 없다.
성별, 인종, 부모, 외모… 그 어느 것 하나 나의 뜻대로 정해진 것은 없다.

영화 속 완득이는 그런 점에서 철저한 루저의 설정을 가지고 있다. 꼽추 아빠, 필리핀 이주 노동자 엄마, 정신지체인(비록 혈연관계로 맺어진 관계는 아니지만) 민구 삼촌… 이뿐인가? 현재 그의 부모는 별거 상태로 완득이의 저녁상을 차려줄 사람 하나 없다. 야간 자율 학습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카바레 호객행위를 위해 출근한 아버지와 삼촌의 부재 덕에 누구 하나 "힘들었지?" 물어오는 사람이 없다.

아직 10대의 꿈을 꾸는 소년이어야 할 완득이는 그러나, 카바레 폐업으로 인해 길거리 노점상으로 전락한 아버지가 자릿값을 요구하는 깡패에 의해 힘없이 맞을 때, 보호자로 철저히 현실적인 모습이 요구되는 힘든 아이다. 그 부정의 자리에서 깡패를 막고 설 주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완득이는 절망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일어선다.** 영화 말미에 가면 그는 필리핀계 어머니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장기인 싸움을 스포츠로 전환하여 복싱 선수가 되는 꿈을 꾸기 시작하며 차분히 인생을 발전시킨다.

이런 **불우한 환경의 완득이가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 인생의 개척자가 될 수 있었을까?** 이 이야기가 바로 이 영화의 주제다. 영화는 자본가 계급에서 자랐지만, 아버지의 부가 실상은 이주 노동자의 착취로 인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고등학생 동주가 성장해 학교 선생이 되면서 시작된다(이 설정은 동주 선생과 아버지의 대화 속에서 살짝 언급된다). 학교 선생이 된 동주는 환경이 어렵고 힘든 아이들을 살뜰히 챙기며 그들의 진정한 선생이 된다.

그렇지만 동주는 기존의 그냥 따뜻하기만 한 선생들과는 달리 완득이의 가난과 아버지를 드러내 놓게 한다. 반 아이들 앞에서 자신을 감추기만 했던 완득이, 자신이 간직한 비밀 때문에 항상 혼자이기를 원했던 완득이의 그 비밀을 지속적해 드러내면서 그 비밀들이 실은 인생에서 별 거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인도한다.

영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은 바로 교회다. 가난한 달동네에 세워져 있는 교회는 그 동네 사람들에게 사랑방으로, 데이트 장소로, 자신의 속상한 감정을 협박과 비슷한 기도로 하나님께 대화하는 곳으로 묘사된다. 동주 선생은 이 교회를 이끄는 전도사지만 그는 불법체류이민자를 숨겨줬다는 명목으로 경찰에 수배받기도 하고, 완득이 아버지가 욕설을 들을 때 가장 먼저 대응해 싸워주기도 하며, 엄마를 받아들이지 못해 힘들어하는 완득이에게 소주 한 잔을 건네며 자신은 엄마가 있기만 해도 좋겠다고 설득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후에 그는 자신이 세운 교회를 지역사회를 위한 사랑방으로 세우며 확장하는데 이는 사회의 소외당하는 지체들을 실제로 돕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영화에서 교회는 불법 체류자로 전락한 외국인 이주 노동자, 백수 화가, 삼류 소설가, 카바레 제비 등이 교회에 모여 후에 지역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통의 공간으로 변모한다.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모여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께 위로받는 바로 그곳, 그곳에 교회가 있다고 영화 '완득이'는 말한다.**

- 최인애

꽃을 심는 집배원

작은 지방도시에 중년의 집배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갓 스물 청년시절부터 왕복 오십 리 길을 매일같이 오가며 짜고 쓰고 달고 매운 사연들을 배달해 왔습니다.
그렇게 20년 세월이 흐르고 참 많은 것이 변했지만 우체국에서 마을로 이어진 길에는 예나 지금이나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없이 모래 먼지만 뿌옇게 일고 있었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이 황폐한 길을 다녀야 하는 걸까?'
이런 먼지 길에서 쳇바퀴를 도는 사이 인생이 그대로 끝나 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는 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우편배달을 마치고 시름에 잠겨 돌아가던 길에 꽃가게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래, 이거야."
그는 무릎을 탁 친 뒤 가게에 들어가 들꽃씨를 한줌 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부터 그 꽃씨를 가지고 다니며 오가는 길에 뿌렸습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 꽃씨를 뿌리는 일은 계속됐습니다.

얼마 후, 그가 이십 년을 하루같이 다니던 삭막한 길에 노랑 빨강 꽃들이 다투어 피어났습니다.
여름에는 여름꽃이 가을에는 가을꽃이… 쉬지 않고 피었습니다.
꽃씨와 꽃향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가 평생 배달한 그 어떤 우편물보다도 기쁜 선물이었고 모래먼지 대신 꽃잎이 날리는 길에서 휘파람을 불며 페달을 밟는 그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집배원도, 불행한 집배원도 아니었습니다.

- TV동화, 행복한 세상 중에서/ 이미애

"엄마, 저도 사랑해요"

약 3년 전 겨울, 새집으로 이사 간 지 며칠 안 된 1월 어느 날, 생전 처음 듣는 굉음과 함께 잠을 깼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집은 스모크 알람이 집 시큐리티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어서 엄청난 소리를 낸 것이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거실로 나가니 연기가 자욱하다. 떨리는 다리를 끌고 연기의 진원지를 찾아가니 아이들이 자는 방, 겨울이면 켜 놓았던 이동식 히터가 넘어져 타면서 연기를 내고 있었다. 다른 날과 달리 그날은 화장실로 통하는 문을 열어 놓고 자서 아이들이 연기에 질식하지 않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큰 아이가 4학년, 작은 아이가 2학년, 아이들을 흔들어 깨우니 그 난리 속에서도 세상 모르고 자고 있던 아이들이 눈을 비비며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고 한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아이들을 안방으로 옮기고 난리를 수습한 후 교회로 향했다.

그 날은 제자대학 마지막 과정 '재생산의 삶'이 시작하는 날, 감당하기 힘든 많은 일이 그 날 하루에 일어났다. 클래스 시작은 저녁 7시인데, 8시가 훌쩍 넘어서야 회사에서 퇴근하던 나의 머리에 떠오른 '이번 학기 포기'라는 생각에 자연스럽게 동의하며 집으로 핸들을 돌렸다. 그렇게 집으로 운전해 가던 중, 동기 집사님께 전화가 왔다. "송 집사님, 왜 아직 안 오세요? 모두 기다리고 있는데…" 하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고 핸들을 꺾어 교회로 향하면서 시작된 모임은 우리 부모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였음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어릴 적부터 우리 집은 조상제사를 일 년에 열두 번 치르는 불교와 토속신앙을 접목한 한국형 불교를 나름 열심히 믿는 집이었다. 어머니께서는 그런 집안의 맏며느리로 때마다 제사음식 준비를 치러야 했고 아버지는 조상 제사를 절대 안 거르시는 할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은 맏아들이시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우리가 미국으로 취업 이민을 오게 된 것이 우상숭배의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은 것은 약 6년이 지난 후였다. 우리의 이민 후 어머니께서는 대승 불교의 교리에 심취하여 매일 불경을 외우며 삼천 배, 만 배를 때마다 열심으로 드리는 신실한 불교인으로 거듭나셨고 그런 부모님께서 오랜만에 미국 아들 집을 방문하신다는 전화를 받은 것은 그해 2월이었다. '재생산의 삶'에서 부모님 방문계획을 나누면서 부모님께서 일년에 열두 번씩 제사를 지내시는 것과 불교에 다니며 우상 숭배의 삶을 사시는 이야기를 나누다 나도 모르게 감정이 복받쳐 오르게 되었고, 그 모습을 본 목사님,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 등 많은 사람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것이 부모님 방문 약 3주 전 일이었다.

부모님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골프를 좋아하시는 아버지께 골프 친구들을 소개해 드리겠다며 많은 어르신이 참여하시는 교회의 노인대학에 모시고 갔고, 또 주일예배도 그렇게 쉽게 따라 나오셨다. 열심히 기도해 오시던 많은 분의 환대에 교회 가는 날을 은근히 기다리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어머니는 독서를 좋아하시는데, 그 당시 내 책꽂이에 읽을 만한 많은 복음 서적이 있었던 것 역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아니었을까? 그 당시 우리 부부는 교회에서 찬양팀을 섬기고 있었는데, 부모님께서는 우리 부부의 찬양하는 모습도 보기 좋게 여기셨다. 그러던 어느 주일, 기억으로는 세 번째 교회 방문 주일이었던 것 같다. 어머니께서 예배당에 앉아 기도해 보고 싶은 마음에 머리를 숙이는데 "얘야, 내가 너를 기다렸다." 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하셨다. 그 무렵 김하중 장로님의 '하나님의 대사'를 읽고 많은 은혜를 받으신 어머니는 목사님과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께서 심방 오신 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하셨다.

그 후 한국에 돌아가서는 불교 신도회에서 끈질기게 오는 연락을 끊으시고, 근처 교회에 출석하셔서 세례도 받고 즐겁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신다. 어머니는 얼마나 열심인지 새벽예배에 매일같이 출석하시고 칠순이 훌쩍 넘으신 연세에 1부 예배 찬양대에 서시며, 매주 노방 전도를 나가서 복음을 전하신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노방전도에 은사가 있으신 것 같다고 하신다. 한국에 가신 후 전화 통화 때마다, 우리 아들 덕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울먹이시며, "우리 아들 사랑해"라고 하실 땐 내 가슴이 먹먹해지곤 했다. 어머니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들은 것이 내 기억을 통틀어 그전에는 없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채워진 것이리라. 주님, 사랑합니다.

- 송준현

'새로운 삶'을 마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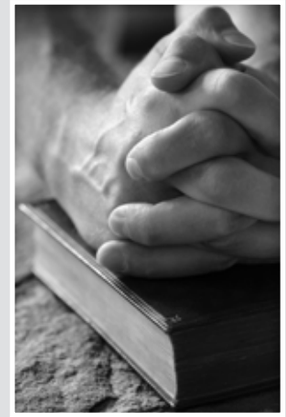
저는 미국에 천문학을 공부하러 온 후 하나님을 믿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바쁘다는 핑계로 또 안 믿는 남편을 핑계로 오랫동안 일요일만 다니는 Sunday Christian으로 살아 왔었읍니다. 이혼이라는 어려움을 당하면서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읍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 가장 우선 순위로 두고 살기로 했지만 어떻게해야 할지 잘 알지 못했읍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수강을 오랫동안 원했읍니다.

그런데 막상 수업이 시작되자 뜻하지 않게 일이 두번이나 생겨 수업을 빠지게 되었읍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과정을 못 끝내더라도 그냥 가서 수업을 듣자 생각하고, 세 번째 수업에 참석했읍니다. 그런데 수업 내용이 정말 내가 구하던 문제들을 토론하고 또 대답을 주는 것이었읍니다. 특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저에게 산 지식이 되었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서 어떻게 주님께 내 삶을 맡길 수 있단 말인가? 주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주님은 또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수업을 하면서 배우다 보니 안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몸으로 막아서야 한다는 배움이 뜨겁게 와닿습니다.'몸으로 막아설 자는 없는가? 잃어버린 배우자를 위해 중보기도로 몸으로 막는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내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할 때 그랬어야 했었구나.'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늦게 믿어서 남편도 곧 믿겠지.'그러한 희망만 갖고 기도할 뿐 복음조차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같읍니다. "사탄은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의 이득을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원을 멸하거늘" 그런 악한 영들을 내가 대적치 못했구나. 나의 교만함과 열심치 못했던 나의 크리스찬으로서의 모습에 회개를 했습니다. 당신의 남편이나 아내가 아직 주님을 안 믿는다면 당신은 지금 전쟁터에 있다는 것을 저희 간증을 통해 주님께서 여러분께 일깨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주위를 돌아보니 너무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는 가정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저의 삶을 간증하고자 합니다.

제가 한국에 방문했을때 연로하신 부모님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깊은 제 심장 안에서 남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사랑을 전해줄 수 없겠니?" 그 후 어머님은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읍니다. 이미 결혼을 구제하기는 늦었지만, 음성을 듣는 그날부터 주님 '그 음성'은 나를 변하게 하고 있습니다. 혼자 유학와서 나의 길을 추진하게 했던 그 고집이 얼마나 가족에게, 또 남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깨닫게 하셨고, 원인을 정확히 알면 처방도 싶다는 말이 있듯이 나를 창조하신 주님은 나를 너무 잘 아시어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달음과 답을 주셔서 나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새로운 삶" 수업에서 성경 말씀과 성령의 깨우침으로 저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는 과정은 정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David 목사님과 수업을 같이 듣는 집사님들과 함께 나에게 그 대답을 얻을 수 있는 많은 지혜와 조언을 주었습니다.

중학생이 된 저희 딸과 SENA 큐티(QT)책으로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 전만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처음 며칠은 큐티를 했지만, 며칠 후에 딸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느낀 후 딸과 조용히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의 우선순위야. 다른 것들은 엄마가 하라는 것들을 안해도 돼. 그렇지만 이것 한가지만 하자. 죄가 가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주님안에서의 평화와 축복을 누릴 수 없단다." 다른 것을 안 해도 된다는 말에 우리 딸은 신이 났습니다.

그런 후 큐티를 몇 번 해보니 재미있게 진행됐습니다. 항상 밥 먹으면서 "학교 어땠니? 오늘 누구 하고 놀았니?" 하는 되풀이되는 이야기를 주로 했었는데 이제는 큐티를 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친한 친구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때 같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사랑으로 대해야 할지 방법을 같이 생각해 보기도 했읍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인생을 가르치는 것이구나.' 큐티를 항상 저하고 같이 해야만 했는데, 한번은 "새로운 삶" 수업을 갔다오니 혼자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크리스챤으로 사는 게 어느 때는 이렇게 힘들구나 생각됩니다. 내 맘대로 할 수 없고, 말도 함부로 못하고 전에 같으면 내가 사과해야 할 일이 아니지만 남에게 사과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 과정을 통해 제가 예수님을 닮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기쁩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당신은 세상의 아픔과 고통때문에 괴로와 하고 계십니까? 위로의 주님께 그 마음을 맡기십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시간이 될것있니다. "새로운 삶" 수업이 끝나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위해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 갈지 아직 잘 모르는데, 벌써 수업이 끝나다니! 그렇지만 정말 많이 배웠고 주님께서 다음 단계를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 노정희



'성경 학교'를 마치면서...

한7년전 즈음 다니던 교회를 그만 두고 임마누엘 교회로 왔을때 주일예배만 잠시 드리고 조용히 사라지는 생활을 꽤 오래 했었습니다. 저의 신앙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점점 더 식어가는 것을 느끼고 있었을 즈음, 목장 생활을 우연한 기회에 다시 시작했고 목자님의 권유로 바로 그 다음 학기부터 성경학교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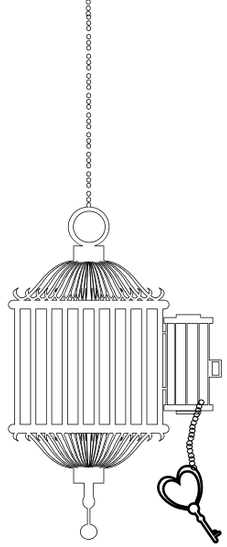
생명의 삶에 이어서 두번째로 수강한 과정은 새로운 삶 과정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석정일 목사님께서 강의하셨는데요, 이 과정은 경건의 삶 과정과 더불어서 숙제가 많은 것으로 유명 했습니다. 성경구절을 암송하는 것이 많아서 회사 책상 앞에 붙여놓고 외우고 또 외우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 과정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하루 금식하고 모여서 기도하는 순서에서 처음으로 방언 기도가 터져 나온 일이었습니다. 그전까지 방언 은사를 특별히 사모한 적이 없었던것 같은데, 수업시간에 방언에 대해서 배우고 또 다른 수강생들과 토론을 하면서 방언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자 마자 기다리셨다는 듯이 바로 주시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후 성경탐구 40일 구약과목을 듣고, 그 다음에는 경건의 삶을 수강했습니다. 숙제가 거의 없는 성경탐구 과정과는 달리 경건의 삶 과정에는 다양한 종류의 숙제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기도하는 습관도 없었고, 성경 읽는 습관도 없었는데, 억지로 숙제를 하느라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경 읽고, 숙제도 하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훈련을 통한 제 삶의 변화는 저 보다 제 집사람이 훨씬 금방 느끼더군요. 성경 공부를 수강하는 동안 제가 훨씬 부드럽고, 신경질도 덜 내고, 표정이 밝고 좋다고 하더라구요.

개인적으로는 숙제와 훈련이 동반되는 과정이 제게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울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성경공부를 통해서 여러 해 동안 메말랐던 제 믿음에 뜨거운 눈물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는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찾게 하셨습니다. 새벽기도에 나가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 달라고 구하기도 했고, 수요예배에 참석해서 눈물로 부르짖어 보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못 듣는건지 아니면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건지 알수가 없던 차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과목을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수강신청을 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전에 알지 못했던 많은 것을 배웠지만, 아직까지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제 스스로를 발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지난 학기에는 선교의 삶을 수강 했습니다. 탄자니아 선교를 수년간 하셨던 민찬식 목사님, 그리고 이집트에서 사역중이신 탁수연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예배당을 빌려서 개척중인 인도 교회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참 유익했고 선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 준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저를 보내시든지, 보내시지 않더라도 선교를 후원하고 기도로 돕는 일을 계속해서 하도록 시키실 것입니다. 목장과 더불어서 성경학교는 제 믿음을 성장시킨 원동력입니다.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식구들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많이 알아 가시길 소원합니다.

- 박종화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

-손동희 저-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는 너무 잘 알려진 이야기여서 사실 큰 기대없이 읽었으나 따님이 직접 써 내려간 내용들은 눈물없이는 읽어 내려가기 어려웠고 감동과 도전 그 자체였습니다. 또한 매일 매일의 영적 전투의 현장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몸소 보여주신 인생이었습니다. 우선, 적당히 타협하며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지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며 살던 저의 모습을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손양원 목사님의 신앙이 그대로 양떼들에게 이어짐을 보며 신앙의 본이 되는 삶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 이태업

모진 고난과 역경속에서 신앙을 지켜내고 그 아버지에 그 아들처럼 젊은 나이에 순교자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친 동인, 동신 두형제와 손양원 목사님의 삶은 너무 편하고 풍부한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데 아무런 제재가 없는 미국에서 사는 나로서는 참으로 존경스럽고 감격적인 삶이다. 과연 내가 손양원 목사님의 위치에 있었다면 목사님처럼 신앙을 지키고 순교자의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었을까? 가만히 있으면 쉽게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신앙생활 가운데 손양원목사님의 신앙일대기는 나에게 크게 도전을 준다. - 김재호

만약 나도 그시대에 살았고, 그와 같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배고픔도 모르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아보지 못한 나에게는, 아니면 지금 같이 편하게 살며 이렇게 사는 것이 극히 정상적인 나에게는 상상하려고 노력을 해보아도 감이 안잡힌다. 지금도 예수님을 몰라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 하는 마음이 조금밖에 안드는 내 자신이 이 책을 읽으면서 부끄럽기는 하다. - 강경녀

오늘날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믿는 사람으로서 본을 보이며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누구나가 믿음이 크던 작던 할것없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인정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 받기보다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으며 아버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며 처음이자 나중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 김승남

손양원 목사님 딸의 심정은 많이 표현되어져 있지만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이 글로는 많이 표현되어 있지 않음이 내게는 조금 안타까왔다. 하지만 그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엿볼수 있는 구절들이 있어 그분의 마음을 또 그분의 기도를 상상해보며 책을 읽어 내려갔다. 48세라면 그리 긴 세월은 아닐찐데 일제시대와 6.25를 겪으시며 지켜온 손양원 목사님의 신앙과 순종은 그 어느 누구도 쉽게 흉내조차 내기 힘들리라. 손원배 목사님의 설교말씀 중 구원은 은혜없이는 설명할 수 없고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순종이외에는 설명할 수 없다는 말씀이 생각난다. - 김범진

이제까지 손 목사님에 대해 알고 있던 사실은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그를 양아들 삼았다는 믿기 힘든 일화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하셨다는 정도였다. 이 책을 통해 비로소 손 목사님의 가정환경과 출생, 성장, 결혼, 가족 등 일상적인 삶에 대해, 그리고 그의 목회활동과 믿음생활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다. 과연 한국 기독교계의 가장 위대했던 믿음의 표상으로서 부족함 없는 분이셨다. 목회활동 내내 나병환자들과 함께 생활했으며 그들과 더욱 밀착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자신도 나병환자 되기를 기꺼이 바라기까지 했다는 데는 할 말을 잃게 된다. - 최인화

가장 가까이서 목사님의 삶을 보며 또 함께 그 삶을 살아오신 따님의 글을 통해 쓰여진 손양원 목사님의 전기를 이틀이 안되어 다 끝냈다. 너무 감동적이라 손을 책에서 뗄수가 없었다. 단숨에 너무 쉽게 읽어버렸다. 목사님의 삶이 너무도 아름다운 영화 한편을 접하듯이 하지만 책을 다 읽고 나서가 너무 복잡하고 마음이 힘들었다. 성경책이 연상되었다. 특별히 신약성경이…. 말씀을 이해 못해서가 아니라 그 좋고 은혜롭고 진리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손양원 목사님의 삶이 나에게 그렇게 비춰졌다. - 김미순

두번째 이야기

도시 속의 작은 농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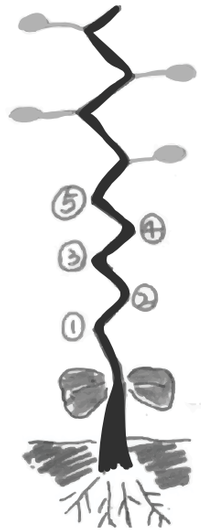
임마누엘 믿음호로 텃밭을 시작하신 분 계신가요? 곁순 따기가 쉽지만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론은 쉽지만, 막상 곁순을 따려니 곁순인지 열매순인지 또 아님 원순인지 영 구분이 안 되어 포기하신 분도 계실 듯합니다. 곁순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 그러다 원순 따서 농사 망치지 마시고 방임재배하십시오. 고! 고! 어떻게 키워도 나의 입과 내 이웃의 입은 즐겁습니다. 이번엔 기본에서 중급 편으로 갑니다. **호박과 오이!**

호박재배

호박재배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쉬운 **방임재배**는 말 그대로 물만 주고 열매를 따 먹는 방법입니다. 둘째로 **어미 덩굴(원순)만 키우기**입니다. 곁순은 나오는 대로 제거합니다(수확이 빠르고 빨리 끝나며 좁은 장소에 키울 때 사용합니다). 셋째로 **어미 덩굴 하나와 아들 덩굴 하나 키우기** 입니다. 세 번째에서 나오는 곁순 하나와 어미 덩굴만 키우고 나머지 곁순은 모두 제거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치기, 순 지르기**입니다. 원순 5번째 마디 위를 가위로 자릅니다(원순을 자른다 하여'순 지르기'라 부릅니다). 그리고 1, 2, 3번째 곁순은 제거하고 4, 5번째 곁순만 키웁니다(열매 많이 따고 싶으신 분들은 7번째 위를 자르고 4, 5, 6, 7번째 곁순을 키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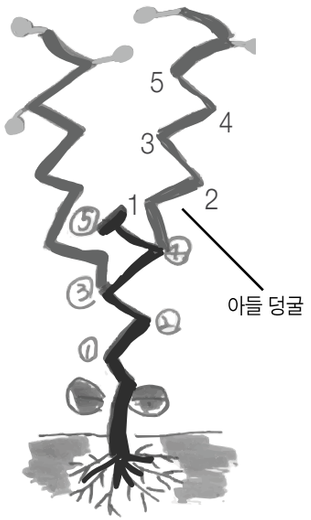
가장 쉬운 방임재배는 쉽지만, 열매가 작고 수확할 수 있는 열매 수가 네 가지 방법 중 제일 적습니다. 고급인 네 번째 순 지르기가 열매 수확량도 많고 열매도 가장 큽니다. 애호박, 둥근 호박, 단 호박 등 모든 덩굴 호박은 재배 방법이 같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곁순 제거 시 잎은 남겨 두고 곁순만 자릅니다. 열매가 될 꽃이 피면 와! 하고 금방이라도 호박을 따 먹을 듯이 신나합니다. 하지만 열매가 될 꽃도 역시 다섯마디까지는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글로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니 그림으로 보겠습니다(방임재배는 그림설명이 필요 없을 듯합니다).



어미덩굴(원순)만 키우기

어미 덩굴 하나와 아들 덩굴



순치기, 순 지르기

오이재배

오이재배로 들어갑니다. 호박과 마찬가지로 **방임재배**가 있습니다. 둘째로 호박과 마찬가지로 **원줄기만 기르고 곁순 잘라내기**가 있습니다. 곁순은 보는 족족 잘라 줍니다. 셋째로 **원줄기가 2m쯤 자라면 원줄기를 댕강 잘라주는 적심재배**가 있습니다. 원줄기가 잘리면 곁순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 건강한 곁순 4개 정도만 키웁니다. 호박과 마찬가지로 다섯 마디까지 곁순과 모든 꽃 열매를 따 줍니다. 오이는 지지대를 세워주면 좋습니다.

・호박은 밑거름을 잘 만들어 주시고 웃거름은 그리 중요하진 않지만 주시면 좋습니다. 오이는 밑거름보다 웃거름이 더 중요합니다. 웃거름은 수확이 시작되면 2주 간격으로 2-3번 웃거름을 줍니다.

도시 속의 작은 농촌 시작하셨는지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상추, 깻잎 등은 초보 작물이고 이곳 캘리포니아에선 3모작도 가능합니다. 텃밭을 지으며 들어가는 시간, 정성, 물값을 계산하고 내가 먹는 야채를 계산하면 농사 못 짓습니다. 텃밭의 기쁨은 나눔에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땀과 사랑이 배어있는 우리의 삶을 이웃과 나눌 때 예배의 삶이 자리 잡는다고 믿습니다.

-김범진

사랑하는 어머니

어머니의 기도를 저는 기억합니다. 그 기도는 항상 저를 따라다녔고 지금까지 그 기도가 제게 꼭 매달려 떨어지지 않았다는 걸…. 우선 한결같이 저를 사랑해주시고 끊임없는 기도로 지켜주신 어머니의 사랑을 글로 표현할 수 있어 기뻐요. 또한 이 기회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내 편이 되어 주신 어머니,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나를 기도로 일으켜 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기도와 사랑은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었어요.

어린 시절, 비록 피아노 학원을 하시느라 저와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 하셨지만, 항상 자기 전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셔서 지금도 주님 안에서 성숙한 자녀로 사는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저는 어머니만 바라보고 순종하는 바른 생활의 아들인 것 어머니는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어머니를 닮아 착하고 순수하고 성실한 마음 때문에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다른 지체들을 섬길 수 있고 찬양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교회에서 반주로 섬기고 봉사하시는 모습이 제 눈에는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꺼리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만 인정 받으시려는 그 모습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주님 뜻으로 2006년, 미국에 오게 되었을 때 참 암담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솔직히 겁이 났어요. 어머니도 그러하셨을 텐데 담대하게 지금까지 주님의 인도 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심을 감사드려요. 어머니 혼자 저와 동생을 돌보시고 이곳에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제가 가장의 역할을 해야 했었는데 어머니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많이 죄송스럽고 저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해 주셔서 지금 이 순간, 하루를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해 주신 어머니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바른 생활이었던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간 후 방황을 시작했을 때 어머니는 세상적으로는 무너질 것 같으셨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를 위해 골방에서 기도하셨던 기억이 나요. 제가 탈선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을 의식하며 인정 받으려는 욕심이 있다는 걸 어렸을 때부터 잘 아셨을 거예요. 학업이 불안한 가운데 제 내면에 있는 화를 어머니께 풀고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과장되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 드렸었네요. 속과 겉이 다르게 행동하

고 어머니께 거짓말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었네요. 그러다 10학년 때, 제 뜻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찰나에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어머니의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셨던 심정을 저는 지금 이 순간 이해하고 깨달아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조그만 믿음만 있었더라도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 것을요. 그 상황에서도 눈물의 기도로 저를 위로해 주셨고 주님의 끝없는 사랑처럼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영민아…" 이 말을 절대 잊지 않아요. 앞길이 막막했지만, 주님의 은혜로 한국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셨을 때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아들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해 주신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1년동안 한국에서 아버지와 생활하다가 산호세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어머니는 저를 주의 품으로 반겨 주셨습니다. De Anza College에 다시 진학할 기회를 주신 주님 은혜에 정말 감사드렸어요. 하지만 또 넘어졌어요. 이번에는 계속되는 불안감과 지나치게 남을 의식하여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지만,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듯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다시 회복할 수 있었어요. 잘 못 치는 기타를 들고 찬양 인도자로 사역하면서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이제서야 어머니의 한량없는 사랑을 느끼게 되었네요. 주님은 반드시 사랑하는 자를 지키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확고한 믿음과 어머니의 골방 기도에서 나온 그 사랑에 너무 큰 감동을 받고 이 글을 마치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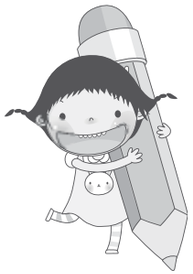
지나간 어려움 속에서도 내 뒤에서 날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날마다 저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저를 큰 그릇으로 쓰시기 위해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셨어요. 그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 "어머니! 이제 같이 기도해요. 주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영민(Alvin) 드림

- 김영민

‘A Little Goodbye’

I still remember the day when my 14 year old self first walked down the long, big hallways, into the stuffed service room, and having to stand up only to have a swarm of heads look in my direction; it was quite an experience. I remember thinking how horrible this place was because there were just too many people. How were people supposed to come together as one; you know, be a church? But I’m pretty sure I have a good answer to that question.



Today I am a senior, ready to embark on a new journey to college, but it never hit me that with every new adventure, there is a little goodbye tucked away. With this, I will begin my first little goodbye to Korean Emmanuel Presbyterian Churc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Pastors, teachers, sisters, brothers, and parents you have all made me the individual I am today and I am incredibly blessed to have had the opportunity of meeting you all here.

At first I was very skeptical of the size of this church, but honestly the quantity did not hinder the quality of each relationship that was formed. However, in this short essay I am going to focus on the impact that our Pastors and teachers have made on all of us.

Pastor David, we could never have asked for a better mentor, teacher, best friend, father figure, and Pastor. Your wisdom, care, and love for God have helped guide us to the place we are supposed to go. Thank you for being so raw and straightforward with us all. Sometimes it may seem horrible and hurtful, but in the end it challenged us and led us to understand ourselves and God more. Thank you for your passion to see KEPC Youth rise up to bring change here in the Bay Area. It has been a crazy adventure with you and I am so glad you were our Pastor. Thank you Pastor David!

Teachers, your unconditional acts of love for all of us keep us speechless. From grabbing lunches to making us care packages, you have always sacrificed your time to help us in our faith or just to build a relationship with us. Thank you for putting yourself out there to really love on us. All those small actions do not go unnoticed. You are all phenomenal people.

Through the relationships built through small groups, events, and Discipleship/REST, I have come to understand that through people like the Pastors and teachers, size of the church becomes insignificant because all that matters is the heart. And because of all your big hearts, KEPC is an amazing place, an unforgettable place, and a home.
Thank you.

Love,
Julie Park

성서속의 한약재 : 침향

(沈香, Aquilaria agallocha Roxb.)

예수님의 장례식에 니고데모가 준비해온 것은 침향과 몰약 섞인 것이었다. 그 양이 백 근 정도라 하였는데 요즘 도량형으로 환산하면 33Kg 정도라고 한다. 그중에 침향은 지금도 희귀하고 효능도 뛰어나 고가의 약재로 유통되고 있다. 특히 베트남 지역의 침향이 효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유통가격이 대략 그램당 20불 정도라고 하니, 10Kg만 하더라도 20만 불 정도에 해당하는 약재를 구해 온 것이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며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는데 요즈음으로 치자면 명망 있는 종교 지도자이면서 국회의원 정도에 해당하는 직위에 해당한다고 한다. 사회적으로 존경받으며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직위에 있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진귀한 장례용품을 준비하여 온 것을 생각하면 그가 예수님을 얼마나 존경했는지 얼마나 극진히 마지막 장례에 임했는지를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그 당시 유대 장례 전통에 따르면 인간은 흙에서 온 몸이므로 어서 속히 흙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당일 장례를 원칙으로 하여 다음날로 넘기지 않았으며, 방부제 역할을 하는 향품 등의 약재는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스라엘 왕들의 장례식에는 귀한 향품 등을 사용하였다고 한다(유다 3대 왕 아사 : 역대하16장14절, 유대 마지막 왕 시드기야: 예레미야 34장 5절).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거의 당시 국왕의 장례에 임하듯 존경과 애도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

동의보감에 침향의 효능과 복용법은 다음과 같이 소개되고 있다. 침향은 성질이 열하고 맛은 매우며 독이 없다. 풍수나 독종을 낫게 하며 나쁜 기운을 없애고 명치끝과 배가 아픈 것을 멎게 한다. 또 신정(콩팥의 기능)을 도와 성 기능을 높이며 냉풍으로 마비된 것, 곽란으로 토하고 설사하거나 쥐가 나는 것을 치료한다. 중국의 영남과 광동, 광서지방에서 난다. 그 지방 사람들이 침향나무를 보고 칼로 베어 홈을 만들어 두면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빗물이 스며들고 난 뒤에 향이 뭉쳐진다. 그것이 굳고 검으면서 속이 옹골차서 빈 데가 없으면서 물에 가라앉는 것을 '침향(沈香)'이라 하고 물에 뜨는 것을 '전향(煎香)'이라 한다. '전향' 가운데서 생김새가 수탉의 다리뼈처럼 생긴 것은 '웅골향(雄骨香)'이라 하고, 말발굽처럼 생긴 것을 '마제향(馬蹄香)'이라 한다. 비록 물에 가라앉더라도 속이 빈 것은 '계골향(鷄骨香)'이다. 불에 태우면 아주 맑고 진한 향기가 난다. 침향은 능히 여러 가지 기운을 도와준다. 위로는 머리끝까지 가고 아래로는 발밑(용천)까지 가므로 사약(다른 약재의 효능을 도와주는 약)으로 쓰인다. 달이는 약에 넣을 때는 갈아서 넣어 먹고 환약이나 가루약에 넣을 때는 따로 아주 곱게 갈아서 쓴다.

이처럼 침향은 소나무에서 나오는 송진처럼 침향 나무에서 채취한 수지(진액)이며, 글자의 뜻(가라앉는 향)처럼 침향은 비정상적으로 솟아오르고 흥분된 기운들을 정상화시키는 기능이 강하여 스트레스나 화병에도 많이 쓰이고 명상 센터 등의 장소에도 향으로 태워 사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나쁜 기운들을 몰아내고 부패 되는 것을 막아 준다 하여 방부제로도 사용하였고, 최근에는 면역기능 증대와 항암효과도 인정되어 각종 암 치료, 자가 면역질환, 알러지 등에도 사용되고 있다. 최근 고국에서 황제에게 진상되는 보약이었다고 하여 시중에 널리 유통되고 있는 공진단에도 사향 대신 침향을 사용하기도 한다. 효능이 사향보다는 약하지만, 가짜 사향 등에 속는 것보다는 진품 침향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 이태업

HOP to God, 하나님께 달려가는 아이들

2013년 9월, 킨더에 다니는 작은 아이부터 5학년에 이르는 큰 아이들까지 임마누엘 교회의 아이들이 매 주일 오후 2시, 성가대실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HOP to God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임마누엘 교회 어린이 합창단의 아이들입니다. HOP to God은 단어 그대로'하나님께 뛰어간다'라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합창단에는 약 40여 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합창단을 통해서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아이들과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바로 얼마 전인 5월 24일, HOP to God이라는 이름으로 모여 처음으로 단독 공연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번 공연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달란트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가르쳐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저희 합창단 담당 김병언 장로님께서 네팔로 단기선교를 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네팔에서 저희 아이들이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를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홍추민, 홍보영 선교사님의 새로운 사역인 Father's House를 돕기 위한 자선 공연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Father's House는 인신매매의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6살에서 16살의 네팔 소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곳입니다.

이번 공연을 준비하며 아이들에게 Father's House에는 엄마, 아빠도 없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너희 친구들이 살고 있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너희가 노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오랜 연습에 지칠 때에도 "얘들아, 너희가 왜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지 아니?"라고 물으면, 아이들은 "Father's House를 위해서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공연 날이 점점 다가오면서 댄스팀을 하는 아이들은 6시가 넘어서까지 교회에 남아 연습을 하기도 하였고, 솔로를 맡은 아이들은 주중에도 따로 모여 연습하곤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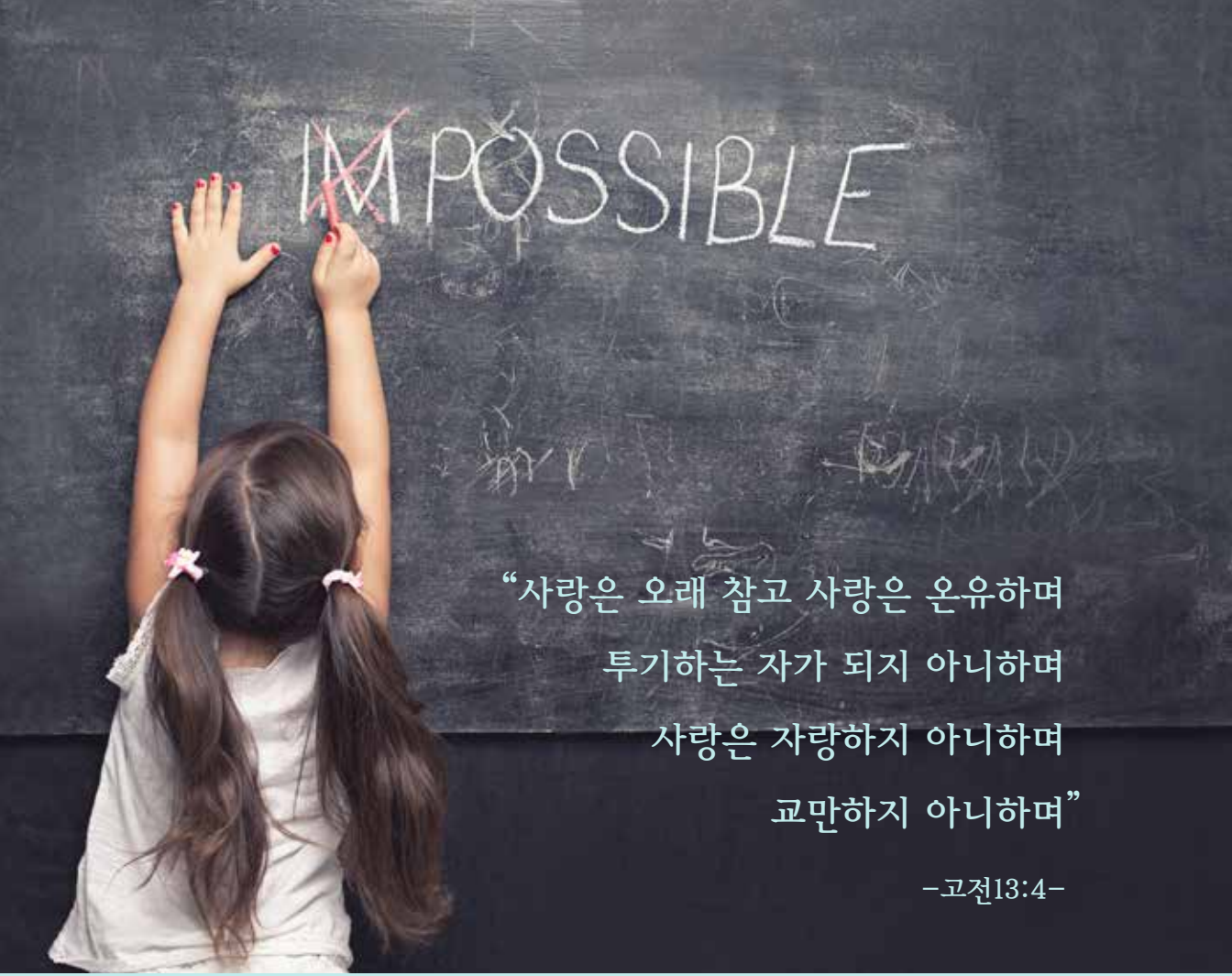
"For a couple of months, I have been teaching, some of the choir members of HOP to God, dance. Once a week, after their choir practice, we met up and they danced for a couple of hours and the dance team learned 3 dances throughout this semester. Not only did this experience teach the little kids, I also learned many new things from teaching them. I learned about how much patience and effort goes into a lesson a teacher prepares for his/her students. This expanded my understanding about my own personal teachers at school and what they go through to teach us. I loved to see the bright and cheerful faces of the dance team members and I always looked forward to seeing them. Even though the 3 hour dance practice were sometimes tiring the kids always reminded me that we were doing it for God."
-Sydney An

이번 공연의 주제는 "Jubilate Deo,하나님을 찬양하라!" 였습니다. 이번 공연의 곡들은 아이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것들도 있었고, 아이들이 새로 접하는 것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도 CD를 들으며 곡을 익히고, 연습하니 아이들도 곡에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자신감이 붙어갔습니다. 솔로를 하고 싶다고 하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져서, 심지어는 선생님이 솔로를 하기로 했던 부분들도 본인들이 하고 싶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아이들 덕분에 솔로가 필요 없었던 곡들에서도 솔로 파트를 만들어 넣기도 했고, 댄스를 하려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곡들에도 댄스를 넣게 되고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팀을 만들어 연습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 공연에는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7학년 안지오 학생이 댄스팀들의 안무와 연습을 맡아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댄스를 가르쳐주는 언니가 좋았는지 언니가 안보이면 계속해서 "댄스 선생님 어디 갔느냐?" 고 찾기도 했습니다.

저희 합창단은 연습에 함께 참여하셔서 아이들을 화장실에 데려가는 것에서부터 간식 준비, 조용히 시키는 것까지 묵묵히 감당해주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어른들의 섬김을 보며, 찬양으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곧 우리 교회와 사회의 든든한 일꾼들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들의 재능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는 귀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배정현

"He put a new song in my mouth, a hymn of praise to our God"
-Psalm 40:3-

"HOP to God 임마누엘교회 어린이 합창단의 네팔 Father's house를 돕는 자선공연을 마쳤습니다. 아직 어린아이들이라 연습과 리허설이 힘들었을 텐데 막상 실전에서는 차분하게 잘 해 준 무대체질의 영리한 아이들!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힘든 것을 참고, 친구들을 기다려 주며 함께 하는 지혜를 배워가고, 세상으로 눈을 돌려 도움을 주는 선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 기특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받는 축복과 사랑이 그 아이들이 바라보는 세상에도 전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한규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고전13:4-

임마누엘장로교회
KOREAN EMMANUEL PRESBYTERIAN CHURCH
4435 Fortran Drive, San Jose, CA 95134/Tel. 408.263.5100/www.kepc.org

발행인	손원배
편찬인	유택종
기획	이윤선
진행	김정신/장은영
사진	김범진/윤영숙
편집디자인	김은경/박정은/ 홍정희

*임마누엘의 다음호는 사랑호입니다.